재외동포의 창

March 2017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생업수단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 해녀문화'

"직업 아닌 공동체 문화… 여성 권리 증진에 기여"

제주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좌). 제주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기 전이나 후에 모여 앉아 불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는 '불턱'의 모습. 사진제공_ 제주도 해녀박물관

지난해 11월 30일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의 의결로 한국의 19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는 명칭 그대로 제주도의 바닷가 여성을 중심으로 전승됐다. 제주 해녀문화는 화산섬인 제주도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르친 생업수단이다.

물질(해녀작업)은 개별적인 작업이면서 공동체적인 협동이 필요한 일이다. 파도에 몸을 맡겨야 하는 해녀들은 혼자보다는 항상 무리를 지어 바다로 나간다. 이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위험한 작업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물질은 어렸을 때부터 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며, 15~17세에 직업인으로서 첫 물질을 시작한다.

제주 해녀들은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잠수굿'을 벌였고, 배 위에서는 노동요인 '해녀노래'를 부르며 결속을 다졌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가 제주 해녀문화에서 주목한 점도 지역성과 여성성이다. 문화재청이 무형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를 보면 제주 해녀를 "제주도의 해안과 인근 섬에 존재하며, 산소마스크 없이 바다에 들어가 각종 해산물을 잡는 여성 잠수부"라고 소개한 뒤 "제주 해녀들은 물질하는 방법과 주술적 의식을 대대로 전수하는 공동체 문화를 유지했다"고 명시돼 있다. 해녀는 부산과 울산, 강원도 등지에도 있지만, 공동체를 중시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된 지역은 제주도뿐이다.

강권용 제주해녀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제주도 이외 지역의 해녀는 직업일 뿐, 문화가 없다"며 "제주 해녀들은 고유한 해양지식, 생태계와 공존하는 삶, 능력 중심의 조직, 민주적인 의사결정 같은 특성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고 말했다. 해녀는 제주도 여성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물산이 풍족하지 않았던 제주도에서 여성들은 험한 바다에 뛰어들어 물질하며 생계유지에 일조했다. 강 연구사는 "제주 해녀는 일종의 전문직 여성"이라며 남성 지배적인 유교문화가 뿌리내린 한국에서는 드물게 집안에서의 발언권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창

CONTENTS

2017. 03

02 한국의 얼
생업수단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 해녀문화'
"직업 아닌 공동체 문화… 여성 권리 증진에 기여"

04 특집
40개국 재외동포 학생 139명에 장학증서… "모국-거주국 가교 돼달라"
재단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20년간 1천여 명 인재 배출

06 화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720만 동포 활용"
재외동포재단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 강원도 MOU

'19대 조기대선'에 재외국민도 참여한다
198만 명 대상, 3월 30일까지 유권자등록 서둘러야

08 기획
'반공 포로'에서 시작해 기업 진출로 커진 인도 한인사회
"한국은 경제성장 모델… 한인, 성실하고 일 잘해 호감"

10 글로벌 코리안
中 상하이 한국인회 첫 여성회장으로 선출된 송영희 대표
'미주 한인사회 기부왕' 홍명기 이사장 또 300만 달러 쾌척
"한국 책 사달라" 전 재산 내놓은 하와이 한인 문유진 씨 부부

12 동포소식
강제이주 80년 기념展 연 고려인 화가 문 빅토르 외

15 동포 캘린더
한국어 실력 겨룬다… 유럽 한인 차세대 루마니아서 웅변대회 외

16 유공동포
쿠바 한인 1세대로 조국의 독립운동 도운 임천택 선생
한글학교 설립하고 한국전통 지키며 임시정부에 자금 지원

17 주목! 차세대
쿠바 한인사회 발자취 다큐 만드는 美 변호사 전후석씨
"우연히 떠난 쿠바 여행이 내 삶을 바꿨다"

18 지구촌통신원
'동남아 한류 중심' 태국 대학입시 제2외국어로 한국어 채택
대학입시 과목 채택 이어 전국 경시대회 종목 편입

19 한민족공감
전 세계 한류 팬 6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 뛰어넘었다
88개국 한류 동호회 1천600개 돌파… 회원은 무려 68% 늘어

20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차세대 동포 장학생 선발합니다" 외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22 동포문학
마이뺀라이
장현서 _ 태국 _ 2016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우수상

24 고향의 맛 · 멋
소설 '태백산맥' 덕분에 더 유명해진 벌교 꼬막
쫄깃한 식감, 풍부한 영양, 다양한 요리…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은 2017년도에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으로 학사과정 60명, 석 · 박사과정 79명 등 139명을 선발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1997년부터 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 육성을 목표로 펼쳐온 장학사업은 1천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재외동포의 창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0개국 재외동포 학생 139명에 장학증서… "모국-거주국 가교 돼달라"

재단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20년간 1천여 명 인재 배출

1

재외동포재단은 2월 24일 서울시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재단 초청으로 40개국에서 온 동포 학생 139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들은 학사과정 60명, 석·박사과정 79명으로 2016년 2학기 또는 2017년 1학기에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했다.

이들에게는 수학 기간 생활비 월 90만 원을 비롯해 보험료, 왕복 항공료, 어학연수비 등이 지원된다. 재단과 협정을 맺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외대, 한양대, 공주대, 포항공대 등 입학생의 경우 학비도 면제받는다.

"학업 집중과 정체성 확립"이 중요

재단은 장학증서 전달 후 기존 장학생 중 재단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졸업생 환송 오찬을 열었다.

장학생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도록 졸업생 논문 발표와 장학생 출신인 김부용 인천대 교수의 유학 경험을 전하는 선배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했다.

주철기 이사장은 장학생들에게 "학업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훌륭한 세계인으로 성장해 모국과 거주국 간 상생발전의 가교 역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답사에 나선 중국에서 온 백해빈 학생(서울대 의과대 석사과정)은 어머니에 이어 모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식을 갈망하고 외국 유학의 큰 뜻을 품어도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데 재단의 도움 덕분에 마음 든든하게 공부에 매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장학생 역사문화체험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돼 내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된 것도 큰 기쁨"이라고 감사해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으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입학한 문블라다 학생은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어학연수 기회를 통해 모국 유학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배려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어려서부터 꿈이었던 모국에서의 공부를 마치면 우즈베키스탄과 모국이 교류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러시아에서 온 구가이 알렉산드라는 학업을 마친 졸업생을 대표해 "고려인 4세로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처음에는 낯설어 적응에 시간이

재외동포재단은 제19기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으로 학사과정 60명, 석 · 박사과정 79명 등 139명을 선발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 육성을 목표로 펼쳐온 장학사업은 1천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고, 이들은 국내외 대기업, 학계, 법조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2

3

4

1. 재외동포재단은 2월 24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139명의 재외동포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2. 재단은 1997년부터 재외동포 장학생 초청 사업을 펼쳐 지금까지 1천여 명의 학생이 장학혜택을 받았다.
3. 재단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학비 외에도 생활비, 건강보험, 어학연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지난해 재단 초청 장학생들은 '한국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강릉의 오죽헌을 방문했다.

걸리겠지만 지나고 보면 모두 추억이다. 모국 생활에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장학생을 격려했다.

장학증서 수여식 후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다양한 조언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모두 "유학생간의 네트워크는 선후배 간 공부뿐만 아니라 모국 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라고 강조하며 "서툰 한국어 등으로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 때는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학생 대기업 · 학계 등 다양한 분야서 활약

재단은 1997년부터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1천여 명의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해 국내 유학 기회를 제공했다. 졸업생들은 국내외 대기업, 학계, 법조계, 재외공관 등에 진출했다.

이들 장학생을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CIS 지역이 그 다음이다. 그 밖에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고루 분포돼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려면 만 25세 미만으로 거주국에서 초 · 중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주국의 국적,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자격을 지녀야 한다.

현재 재학 중인 장학생은 340여 명으로 재단은 이들에게 학비 외에도 생활비, 건강보험료, 어학연수 비용, 한국 역사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학문의 심화라는 목표와 모국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려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유학을 지원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소수만을 선발하는 장학생에 뽑힌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살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재단은 초청 장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졸업 때까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등 뒷받침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주저하지 말고 동포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은 교육사업의 하나로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우수 동포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 CIS 등 낙후된 지역 우수 동포 학생들을 지원해 동포사회 역량을 키우고 이들을 고급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창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720만 동포 활용”

재외동포재단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 강원도 MOU

2월 17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호텔 미팅룸에서 재외동포재단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및 강원도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2월 17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호텔 미팅룸에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및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720만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평창동계올림픽 · 동계패럴림픽 홍보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동포사회 참여 독려를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인 동포재단은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재단 주최 각종 대회와 동포 초청연수 사업을 통해 올림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포사회의 역량을 활용한 올림픽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강원도와 올림픽조직위원회도 MOU를 계기로 재외동포 관련 주요 행사의 강원도 개최와 동계올림픽 참관을 돕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철기 이사장은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에 동포사회도 힘을 보태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게 이번 MOU 취지”라며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재단과 동포사회가 힘을 모아 올림픽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대한민국은 88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동포사회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탰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며 “거주국에서 주류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동포사회의 협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희범 위원장은 “지구촌 화합의 한마당인 올림픽이 한민족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 해외에 홍보를 나가면 동포사회의 뜨거운 관심에 큰 격려를 받는다”고 반겼다.

협약식에는 3개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철기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는 협약식 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인 ‘2017 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를 참관했다.

재외동포들의 고국 사랑은 88서울올림픽 때 유감없이 발휘됐었다. 일례로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축제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에서 성금 100억 엔(당시 한화로 541억 원)을 모금하여 정부에 기탁했다. 이밖에도 재미동포 등 여러 지역에서 6억 원의 성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 성금으로 올림픽 체조경기장, 수영경기장, 테니스경기장, 88올림픽회관, 미사리의 조정경기장 등을 건설했다.

앞서 일본과 미주 지역 등에서 동포들에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성원을 요청한 이 위원장은 “88서울올림픽 때 일본, 미국 등 해외 동포들의 참여와 지지가 올림픽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역사에 남는 성공한 올림픽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창

1988년 10월 1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내 서울올림픽회관앞에서는 ‘재일동포의 지원을 기리는 비’ 제막식이 열렸었다.

'19대 조기대선'에 재외국민도 참여한다

198만 명 대상, 3월 30일까지 유권자등록 서둘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에서 116개국 204개의 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LA 한국 총영사관은 재외 선거를 위해 투표소 6곳과 투표용지 배분소 6곳을 마련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9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 재외국민도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이번 대선 참여를 위해 116개국에서 204개의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1개국에 6개의 투표소가 늘었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려면 선거 전 40일인 3월 30일까지 재외공관에서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중앙선관위나 각 지역 공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지역 공관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직전 선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

투표는 4월 25~30일 사이 각 지역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시일이 촉박하지만 이미 3차례의 재외국민 투표 경험이 있어서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통상 60일 전까지의 선거인 등록신청이 40일로 줄어든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 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198만여 명이다. 이들의 투표 참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223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10.1%인 22만여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7.1%인 15만8천23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해 4월의 20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15만4천217명 중 6만3천797명이 투표에 참여 3.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참여가 두드러진 국가는 미국 1만3천914명, 중국 8천524명, 일본 7천600명 순으로 전체 투표자의 절반에 이르렀다.

선관위는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가 첫날 총 2만3천304명으로 집계됐다고 3월 12일 밝혔다.

이는 궐위 선거가 확정된 때부터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까지 집계한 것으로, 첫날에만 재외선거인 7천495명과 국외부재자 1만5천809명 등이 신고·신청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첫날 신고·신청 인원(3천181명)에 비하면 약 7배, 제20대 국회의원선거(2천20명)에 비하면 약 11배로 뛴 것이다.

선관위는 "19대 대선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완벽한 재외선거 관리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창

‘반공 포로’에서 시작해 기업 진출로 커진 인도 한인사회

“한국은 경제성장 모델… 한인, 성실하고 일 잘해 호감”

지난해 3월 30일 인도 뉴델리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20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소에서 반공포로 출신 현동화 씨가 부인 윤춘자 씨와 투표하고 있다(좌). 지난해 12월 16일 인도 뉴델리에 있는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수료식에서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구 12억 명으로 중국을 추월할 기세이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꼽히는 인도. 국토 면적도 330만㎢로 세계 7위. 엄청난 국가 크기와 비교하면 인도 거주 한인은 1만178명(2014년 말 기준 외교부 집계)으로 많지 않다. 반면 한국과 인도의 교류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야국 시조 김수로왕에게로 시집와 국제결혼을 한 허왕후의 출생국 아유타국으로 추정되는 인도 북부 아요디아는 힌두교의 성지이다. 고대사에서 양국의 직접적인 접촉은 혜초를 비롯한 불교 승려들에 의해 이뤄졌다.

인도는 6·25 전쟁 때 16개 참전국에는 없지만, 중립국으로서 연인원 627명에 달하는 의료지원부대를 한국에 파병했다. 1953년 6월 타결된 정전협정에서 ‘중립국 송환위원회’ 의장국을 맡았다. 인도 한인사회의 최초 교민이 ‘반공포로’인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됐다. 인도 땅에 발을 디딘 반공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현동화(85) 씨이다. 함경북도 청진 태생인 그는 한국전쟁 때 인민군 중위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어 요양 중 국군에 귀순했다. 1950년 10월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으나 1953년 석방된 후 제3국을 택했던 반공 포로 중 한 명으로 1954년 1월 인도로 가는 아스토리아호에 몸을 실었다. 현 씨의 삶은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을 연상케 한다. 인도에 정착한 현 씨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했고 2대 한인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초대 한인회장으로 고인이 된 지기철 씨도 반공포로 출신이다.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류는 1973년 수교 이래 지난 40여 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꾸준히 협력관계를 증진해 왔고, 특히 2010년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및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 체결로 한층 더 긴밀한 관계로 격상됐다. 인도의 한인사회가 본격적으로 커진 것은 1990년대 들어 대우차,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이 진출하면서부터이다. 대우차를 제외한 3개사는 인도 국민이 자국 업체로 착각할 정도로 현지화해서 뿌리내리는 데 성공했다.

인도는 외국인이 들어가서 사업하기 힘든 곳으로 지적된다. 기후적 어려움이 많고 사업 스타일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성공한 배경은 무엇일까?

India

1.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의 하나로 평가받는 인도의 타지마할.
2. 1950년 한국으로 향하는 엘더 존슨 호에 탑승하는 인도 60공정 야전병원 부대원들의 모습.
3. '한국-인도 화합의 비빔밥'. 지난해 11월 18일 인도 뉴델리 국제무역박람회에서 한국문화 페스티벌 개막행사로 조현(오른쪽 3번째) 주인도 한국대사, 구상수 주인도한인회장(오른쪽 5번째), 박람회 관계자들이 함께 300인분 비빔밥을 비비고 있다.

구상수(59) 재인도(뉴델리) 한인회장은 선진국보다 우리 기업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견해를 내놓는다. 한 개인이 기업의 성장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힘이 인도 시장을 개척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도 전역에 한인회는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푸네, 콜카타, 방갈로르에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도 남부 첸나이 한인회(회장 조상현)는 현지 한인사회의 지난 20년간 기록을 책으로 발간하고 2월 22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첸나이 한인사회는 1996년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진출하면서 형성됐다. 현재는 현대차, 삼성전자, 성우 등 270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있으며 4,500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인도에 거주하는 한인은 대부분 지상사 주재원들이기 때문에 한인회 활동도 이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가정주부의 여가 선용과 자녀 교육이 한인회의 주요 관심사이다. 주재원 자녀들은 대개 인터내셔널스쿨에 다니고 한글 교육을 위해 주말에 한글학교가 운영된다. 그럼에도 자녀 교육은 인도 한인사회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기업의 비용절감 영향으로 주재원 연령층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낮아지고 결혼도 늦어지면서 미취학 자녀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는 문제가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현지인들이 한국인을 보는 시각에 대해 구상수 회장은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성실하고 일 처리를 스마트하게 하고 인품도 좋은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꺼리는 게 많은 일본인과는 별로 소통을 안 하고 중국인에 대해서는 적대국 감정이 있어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있는 차이나타운이 뉴델리에 없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로, 2014년부터 7%의 고성장을 지속해 기업인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조업 육성에 나선 인도는 한국을 성장 모델 케이스로 꼽고 있다. 한류와 함께 한국 업체 진출이 늘어나면서 인도 내 한국어 학습 열기 또한 확산하고 있다. 뉴델리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문화원에 설치된 한국어 교육기관인 뉴델리 세종학당 수강생 규모가 개설 첫해인 2013년 학기당 평균 55명에서 올해에는 학기당 평균 203명으로 3년 사이 거의 4배로 늘어났다.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1929년 '동방의 불꽃'이라는 시로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신음하는 우리나라에 희망의 선물을 안겨줬다. 그로부터 90여 년이 지난 지금, 한인들이 인도 땅에 진출해 '경제성장 불꽃'을 지피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창

“동포가 행복 위한 도우미 역할 충실, 기업 네트워킹 강화”

中 상하이 한국인회 첫 여성회장으로 선출된 **송영희** 대표

중국 상하이(上海)의 한국인회(한국상회)가 송영희(55) 상하이 웨이나화장품 대표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다. 상하이 한국인회는 2월 23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경선 후보의 자진사퇴로 단독 입후보하게 된 송 대표를 만장일치로 제24대 회장으로 추대해 선출했다. 송 대표는 이로써 상하이 한국인회의 첫 여성 회장이 됐다.

상하이 지역 한인 10만여 명의 교민회와 상공회를 겸하고 있는 상하이 한국인회는 그간 전임 회장의 업무처리와 재정난 등을 둘러싼 문제로, 설립된 지 24년 만에 초유의 분란 사태를 겪은 뒤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2개월째 공석 상태였다.

송 회장은 한국인회 역할에 대해 ▲기업을 위해 연결, 전달, 촉진하는 역할 ▲교민들을 위해 풍요롭고 행복한 상하이 생활의 도우미 역할 ▲한국학교 발전을 위해 인력, 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후원, ▲청소년들을 위한 지식 나눔 포럼 개최 등을 한국인회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해 정관을 개정해 회장 임명권 제한, 회장단 · 국장단 · 분과위원 임기제한, 결의 사안별 참가 범위 규정 정립(총회 결의안, 대의원회의 결의안 등)을 제시했다.

송 회장은 에스티로더 마케팅이사와 LG생활건강 화장품 사업부 마케팅담당 상무, KT 홈고객전략본부장, 콘텐츠미디어 본부장(전무) 등을 거친 마케팅 관리전문가로 LG생활건강에서 첫 여성 상무로 발탁됐던 인물이다.

LG생활건강 근무 당시 상하이 주재원을 경험했으며 2016년 상하이에 건너와 웨이나화장품의 중국 현지사업을 맡고 있다.

파행을 겪은 한국인회의 운영 정상화와 함께 최근 중국에서 사업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한인 기업들의 현지 네트워킹을 지원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중단 없어야, UCLA · 라시에라대 후원

‘미주 한인사회 기부왕’ **홍명기** 이사장 또 300만 달러 쾌척

‘미주 한인사회의 기부왕’으로 불리는 ‘M&L 홍 재단’(옛 밝은미래재단)의 홍명기(83) 이사장이 인재양성을 위해 현지 대학 2곳에 300만 달러를 쾌척했다. ‘M&L 홍 재단’은 “홍 이사장이 난치병 연구 및 후진 양성을 위해 모교인 캘리포니아대 LA 캠퍼스(UCLA)에 200만 달러, 리버사이드에 있는 라시에라대의 연구동 설립을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2월 8일 밝혔다. ‘M&L’은 홍 이사장과 부인 로리 홍 여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UCLA는 기부금으로 홍 이사장의 이름을 딴 ‘홍명기 석좌교수’직 2개를 개설하고, 치매 억제와 당뇨병 예방 등 분야를 연구할 계획이다. 홍 이사장은 1959년 UCLA 화학과를 졸업했고, 라시에라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유능한 인재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훗날 더 많은 도움과 영향력을 줄 수 있

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부금을 내고 있다"며 "한인사회가 남들을 돌아보며 서로 나누는 문화가 성숙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홍 이사장은 1954년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정착해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대표적인 한상(韓商)이다. 그는 자신이 세운 산업·건축용 특수도료업체 듀라코트를 지난해 10억 달러 규모에 매각했다.

그는 "이방인이라서 겪는 '유리천장'과 맞서며 남과 다른 차별화로 성공을 이뤄냈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 우물을 꾸준히 깊게 파야 새로운 '창조물'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01년 사재 1천만 달러를 털어 '밝은미래재단'을 설립한 뒤 교육과 장학사업을 펼쳐왔으며 폐교 위기에 처한 남가주한국학원을 살려낸 것을 비롯해 동포사회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2세들 돈 걱정 없이 한국 책 봤으면"… 주지사 '한국관' 마련 약속

"한국 책 사달라" 전 재산 내놓은 하와이 한인 **문유진** 씨 부부

미국 하와이 거주 한인 노부부의 '한국책 사랑'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문유진(82)·문(김)숙기(76) 부부는 무일푼으로 미국에 건너가 정착해 살면서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를 "하와이 매컬리 모일릴리 공립도서관이 한국 도서를 구매하도록 하는데 써달라"며 최근 100만 달러를 쾌척했다.

기부금은 부부가 설립한 한국도서재단에 전달됐고, 앞으로 공립도서관이 한국 도서, 잡지, DVD 등을 살 때 전액 지출하게 된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주지사는 "문 부부의 오랜 기여로 한국 관련 책자와 잡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DVD를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었다"며 "하와이 거주 시민이 한국 책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고마워했다. 그는 앞으로 2년 뒤 공립도서관의 한 층을 '한국관'으로 만들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숙기 할머니는 2월 10일 "우리는 무일푼으로 미국에 건너와 남편은 공무원으로 평생을 보냈고, 저는 와이키키 해변에서 보석 장사를 하며 살았다"며 "20년간 고생을 많이 했어요. 2세들은 돈 걱정 좀 하지 말고 한국 책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 우리 부부의 재산 전부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문 씨 부부는 1997년부터 지속해서 한국 도서를 사들였고, 하와이 공립도서관 내 한국 도서를 관리하고 운영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해 운영했다.

2005년에는 '한국도서재단'을 설립해 지속해서 주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 도서 구입 예산도 따냈다. 이와 함께 하와이 동포, 한국 정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을 추진해 매년 3만 달러 정도의 도서 구입비를 확보했다. 1996년 한국 도서가 200권에 불과하던 도서관에는 현재 3만 권이 넘는 책이 꽂혀 있다. 미국 전역의 주립 도서관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 도서를 비치한 도서관이 됐다. 창

강제이주 80년 기념展 연 고려인 화가 문 빅토르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연 화가 문 빅토르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고려인 화가 문 빅토르(70) 씨는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를 희망의 모습으로 바라본 전시회를 1월 23일부터 2월 7일까지 알마티의 카스체예바 국립미술관에서 열었다.

'내 팔레트의 수원-바스토베' 전(展)에서는 문 화백이 듣고 겪어온 고려인의 역사를 그만의 방식으로 형상화한 81점의 유화 작품을 선보였다. 바스토베는 1937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강제이주 고려인들이 토굴을 파고 살았던 초기 정착촌이다. "중앙아시아 정주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년 전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 작품 중에서도 '가계'라는 작품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 광주광역시 인근에서 살다가 150년 전 연해주로 이주했고, 다시 중앙아시아에 강제이주한 저의 집안 가계도에 무척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그림을 통해 우리의 뿌리를 찾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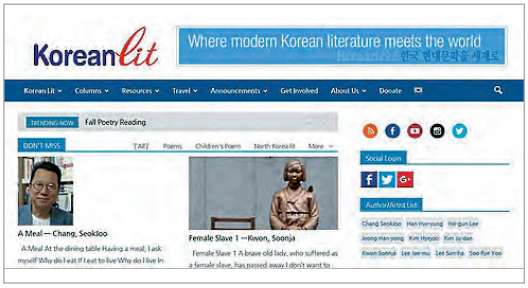
고려인 네트워크 정보화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러시아 ·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맞춤형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고려인협회, 고려문화센터, 여성협회, 한글학교 등 고려인과 한인 단체의 한국어 · 러시아어 홈페이지의 무료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재외동포 신문고'와 온라인 한글교육 사이트인 '스터디 코리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러시아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설명회를 연다.

재미동포들, 한국문학 번역 사이트 첫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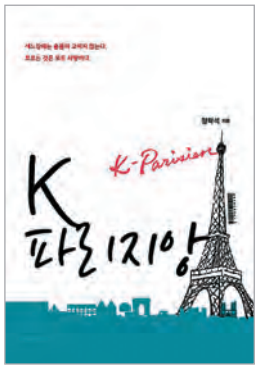
재미동포들이 개설한 한국문학 영문 번역 사이트.

재미동포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인 '매사추세츠 민간 한국문화원'(KCSOM)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은 물론 캐나다까지 소개하는 사이트(koreanlit.com)를 처음으로 개설했다. 사이트 구축에 앞장선 유희주 시인은 2월 5일 "미국은 다민족이 만들어내는 질서 속에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한국의 문학이 또 다른 나라의 문학과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섞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힘들을 모아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며 "문학에 대한 열정보다는 한국과 미국을, 더 나아가 세계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개설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사이트 개설에는 국내 많은 작가와 전승희, 고유진, 권순희, 매튜, 임옥, 이화현, 권순자 등 동포들이 참여했다"며 "이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첫 한국문학 영문 번역사이트는 탄생할 수 없었다"고 소개했다. '한국 현대문학을 세계로'(Where modern Korean literature meets the world)라는 기치 아래 만든 이 사이트는 '현대문학', '칼럼', '예술문화자료', '여행', '독자번역 응모' 등으로 구성됐다.

KCSOM 측은 앞으로 국내에서 창작된 현대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영어권 나라에 소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불수교 130년, 파리의 한인역사 'K-파리지앙' 서울서 출판



프랑스 동포신문 '파리지성'이 현지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주요 인물을 통해 한인 역사를 살펴본 책 'K-파리지앙'을 펴냈다.

프랑스를 무대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주요 인사들을 통해 한인역사를 살펴보는 책 'K-파리지앙'이 출간됐다. 현지 동포신문인 '파리지성'이 2월 말 한국에서 출판한 이 책은 생생한 구술로 한인들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예술작품을 통해 자유를 쫓는 아름다운 영혼들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서이자 예술사라고 할 수 있다. '센강에는 슬픔이 고이지 않는다. 흐르는 것은 모두 사랑이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를 비롯해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를 석권한' 강동석, '동서양의 문화를 한 폭으로 담은 거목' 이응노, '한국 추상미술의 거목' 한묵,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예술가' 이성자, '성냥갑 속의 메시지' 백영수, '물방울 시인' 김창열, '위대한 색채의 마술사' 강정완, '머물지 않은 화가' 이우환 등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1886년 한불 우호통상조약 체결에서 한류 열풍에 이르기까지 한불 130년의 역사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재불 한인사 연혁과 재불 한인 2017년 현황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책을 엮은 정락석 파리지성 대표는 "지난해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재불 한인들의 초창기 역사가 잊히기 전에 그리고 현재의 살아있는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 식기 전에 누군가는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 첫걸음으로 프랑스 한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 뵙고 이야기를 들은 뒤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국어 무료로 배우세요" 'flex 한국어' 동포사회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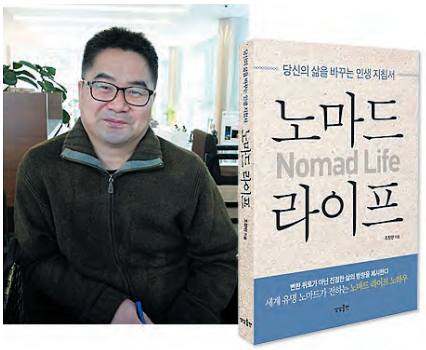
어학 전문가의 재능기부 사이트 'flex 한국어' 인기.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차세대를 위해 어학 전문가들이 모여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이트 'flex 한국어'(band.us/@flexkorean)가 동포사회에서 화제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사이트에는 현재 800여 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그리고 내국인 등이 학습자 또는 재능기부자로 참여하고 있다. 국적도 일본, 중국, 미국,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하다.

국내 최초 한국어 전문학원인 가나다어학원 강사인 장아라 씨가 한국어 학습자료를 매일 다른 주제로 사이트에 올리면 다른 강사들이 그날의 한국어 표현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도 제공하며 음성 녹음 파일도 올려서 발음을 익히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사들은 영어 · 중국어 · 일어 분야에서 통 · 번역가로 활약하는 어학 전문가들이다.

월~금요일까지 주제 학습에 이어 토요일 복습, 일요일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문제풀이를 진행한다. 문제풀이에 대한 정답과 설명에는 강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어에 능통한 현지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여러 국적자가 참가하고 있다. 운영자인 김성준 씨는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느는 데 비해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비용도 드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안타까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다"며 "운영 방향을 논하고 회원 간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월 1회 서울에서 교류회도 열고 있다"고 소개했다.

"취업난 시달리는 젊은이들이여, 해외로 눈을 돌려라"



한 곳에 정주 않는 유목민처럼 노마드의 삶을 소개한 책 '노마드 라이프'를 출판한 중국 전문가 조창완 씨.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새로움을 찾아 나서는 '노마드'(유목민)처럼 비좁은 국내 현실에 안주 말고 해외로 눈을 돌리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책 '노마드 라이프'(상상출판)가 최근 출판됐다. 저자는 중국 산동출판그룹 발행 한국어판 잡지인 차이나리뷰 편집장으로 중국 전문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조창완(48) 씨.

조 씨는 2월 13일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의 중관춘 거리나 선전의 화창베이 전자상가에는 창업에 뛰어든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데 한국 청년들은 모험과 도전을 회피하고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게 안타까워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마드는 현실에 안주 않고 한 곳에 얽매이지도 않으며 자기 생각을 창조적으로 키우고 실천할 곳을 찾아 방랑하는 사람들"이라며 "720만 재외동포야말로 낯선 곳에서 도전을 통해 뿌리를 내려온 노마드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1999년 중국으로 건너가 여행사인 알자여행을 창업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민일보 특임기자 · 새만금개발청의 중국 전문 사무관을 역임하며 중국 관련 책을 13권 펴낸 '중국통'이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를 10여 차례 다녀왔고, 베이징 · 상하이 · 선전 등에서 창업에 도전해 부를 일구며 시대를 선도하는 젊은이들도 만났다. 이를 바탕으로 책에서 '왜 노마드인가' '칭기즈칸을 통해 읽는 노마디즘' '노마드가 되는 법' '노마드의 행복' '이 시대의 노마드들'을 소개했다.

한상기업 청년 인턴십 참가자 모집… 올해 150명 파견

지난해 세계한상대회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상&청년, Go Together!'에 도전한 국내 청년들이 한상 공개오디션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청년 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상(韓商)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올해 150명의 청년을 6개월간 한상기업에 인턴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분야는 디자인, 무역, 행정, 기술직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한정된다.

선발된 인력은 동남아, 미주, 아시아 등의 한상 기업에 6개월간 인턴 십으로 근무하게 되며 이후 양측의 협의에 따라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도 있다.

재단은 연 매출 100만 달러에 종업원 5명 이상으로 현지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인턴의 현지 적응훈련과 실무 교육이 가능한 기업에 인턴을 파견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우수 인재의 해외 진출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면서 차세대 한상으로 육성해 한민족 경제 영토를 확장하자는 것이 인턴십 취지"라고 밝혔다.

참가 자격은 해외 여행 또는 인턴 근무국가 비자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만 34세 이하이어야 한다.

선발된 이들은 근무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글로벌 매너 등을 교육받는다. 파견 후에는 매월 100만원이 지급되며 숙소도 제공된다. 단, 항공료와 비자 발급비는 본인 부담이다.

참가 희망자는 한상넷 홈페이지(www.hansang.net)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재단 한상사업부(+82-2-3415-0155)로 문의 후 지원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창

한국어 실력 겨룬다…
유럽 한인 차세대 루마니아서 웅변대회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남창규)는 3월 17~19일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제6회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를 개최한다. 루마니아한인회 주관으로 열리며 초등부, 중고등부, 다문화가정부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웅변 주제는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한국어의 우수성) ▲한글 · 한국 전통의 우수성 ▲자랑스러운 한국 · 한국인 ▲동포 2세 및 다문화 가정에서 한글 교육의 필요성 ▲나의 장래 희망 등이다.

독립기념관, 7월 모국 찾은 재외동포에 '독도 가족캠프'

독립기념관은 7월 1~2일과 8~9일 두 차례에 걸쳐 '독도 학교 재외동포 가족캠프'를 연다. '한국과 독도를 아시나요?'라는 이름의 캠프로 여름방학 기간에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 가족들이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인근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한국역사와 독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캠프마다 40명씩 2월 2일 이후로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를 원하는 재외동포는 기념관 홈페이지(http://www.i815.or.k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의류업으로… 아르헨티나 한인 50년사 발간

아르헨티나한인회(회장 이병환)는 1965년부터 시작된 한인 이주 역사를 담은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50년사'를 발간했다. 이 책은 1965년 10월 14일 13세대 78명이 농업이민으로 첫발을 디딘 이후 3만여 명으로 늘어난 한인 현황과 의류제조 · 도소매 등 섬유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커뮤니티로 성장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장영철 이민사 편찬위원장은 "'섬유의 절반은 한인 손을 거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공 이민 사례로 손꼽히는 한인 커뮤니티의 역사는 후손들에게 긍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만 한인은 어떻게 살았나… '이주 100년사' 펴낸다

대만한인회(회장 임병옥 · 사진)는 대만 이주 100주년을 맞는 내년에 '재(在)대만 한인 100주년 교민사'를 발간한다고 1월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원로 교민, 대학교수, 한인 단체장, 편집 기자단 등 40여 명의 '100주년사 편찬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올해 자료 수집과 집필 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책을 낼 계획이다. 대만 한인사회는 2009년까지 '대만 한교(韓僑) 협회'가 대표했고, 이후 대표단체가 없다가 2013년부터 한인회가 새로 발족했다.

호텔경영 한인 협력체 '해외한인호텔협회' 창립

전 세계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한인들이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를 위한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호텔 및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2월 1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아시아나호텔(사진)에서 열린 '제1회 중동 · 아프리카 경제인대회'에서 '해외한인호텔협회'(OKHA)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OKHA는 4월 26~2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옥타 제19차 세계대표자대회에서 1차 총회를 열 예정이다.

월드옥타, 아프리카 · 중동경제인대회서
4천900만 달러 수출상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2월 18~2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아시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프리카 · 중동경제인대회'에서 4천900만 달러어치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으며 실제 계약액은 156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월드옥타 두바이 지회(회장 차진성)가 주관한 이 대회에는 전 세계 15개국 26개 지회에서 2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월드옥타는 1981년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모국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경제단체로, 2만4천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쿠바 한인 1세대로 조국의 독립운동 도운 임천택 선생

임천택(에르네스토 임. 1903~1985년) 선생은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2살 때 홀어머니 품에 안겨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1천여 명의 한인들은 에네켄(애니깽. 선박용 밧줄의 원료 등으로 쓰이는 선인장과 식물) 농장에 팔려나가 노예와도 같은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임 선생은 18살 때 320여 명의 한인과 함께 더 나은 삶은 찾아 쿠바로 건너갔다. 임 선생을 포함한 쿠바 이민 1세대들은 첫발을 디딘 동부 마나티 항구 마을에서 사탕수수 수확 일을 하다가 1921년 5월 마탄사스로 건너가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면서 시 외곽 '엘 볼로' 마을에 한인촌을 형성했다.

엘 볼로에 모여 살던 한인들이 마탄사스 시내로 들어오면서 임 선생의 자택은 1943년부터 1952년까지 마을회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임 선생은 어머니와 함께 유카탄으로 건너와 16년간 한인학교에서 한글을 깨우친 것이 전부였으나 쿠바에서의 한인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민성학교와 진성학교라는 한글 교육기관을 세워 2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쿠바 한인들에게 조국의 언어와 풍습을 잊지 않도록 노력했다. 1930년대에는 청년학원과 대한여자애국단 쿠바지부 창설을 주도했다. 임 선생은 마탄사스, 카르데나스 등지에 흩어진 한인지방회를 규합해 '재쿠바 한족단'을 결성한 뒤 1934년부터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복운동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인 회원들은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면서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정성을 모았다.

만년의 임천택 선생과 부인 김귀희 여사(위). 임천택 선생의 3녀 마르타 임 여사. 아바나대학을 나와 마탄사스 종합대학에서 33년간 철학 교수를 지낸 임 여사는 쿠바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마탄사스 시에 아직 살고 있으며 역사학자였던 쿠바인 남편과 함께 10년의 공을 들여 '쿠바의 한인들'이라는 책을 펴냈다.

> **한글학교 설립하고 한국전통 지키며 임시정부에 자금 지원**

임 선생의 3녀인 마르타 임(79 · 한국이름 임은희) 여사가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2004년 저술한 '쿠바의 한국인들'이라는 책에는 한인 노동자들이 매달 월급의 5%를 독립운동 지원금으로 적립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는 고국과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쿠바에서도 광복을 위한 후원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임 선생은 1930년 쿠바에 천도교 종리원을 열고 교리사업과 민족혼 심기에 노력했다. 마르타 임 여사는 부친에 대해 "1950~1956년 재쿠바 한인협회장을 지내신 선친은 늘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하셨다"며 "쿠바에 쌀이 비교적 풍족한 편이었기에 끼니마다 쌀을 한 숟가락씩 모아 그것을 판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회고했다.

임 선생은 1985년 쿠바에서 83세를 일기로 타계했으며 광복 50주년인 1995년 그가 쓴 기록이 공개되자 국가보훈처는 독립자금 모금과 동포의 권익 보호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199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선생의 유해는 2004년 국내로 봉환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임 선생은 부인 김귀희 여사 사이에 9남매를 뒀다. 장남 임은조(1926~2006년, 쿠바명 헤로니모 임)씨는 쿠바 한인 최초로 국립 아바나종합대학을 나왔고 쿠바혁명에 참가한 공로로 공업부 차관과 지방도시의 시장을 지냈고 한인회장으로도 활약했다. 창

쿠바 한인사회 발자취 다큐 만드는 美 변호사 전후석씨

미국 뉴욕의 젊은 변호사는 우연히 떠났던 쿠바 여행을 계기로 삶이 크게 바뀌었다. 맨해튼 사무실에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퇴근 이후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깜짝' 변신을 준비 중인 것이다. 주인공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전후석(33) 변호사.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겨울 휴가로 떠난 쿠바 여행에서 운명과도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다"면서 "그날 이후 쿠바 한인의 발자취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일에 제 모든 걸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가 처음 쿠바에 발을 디딘 것은 2015년 12월이다. 당초 방문 목적은 "쿠바가 2014년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한 만큼 사회주의 나라는 어떤지 구경하며 여행을 즐기고 싶었다"는 말처럼 단순했다. 하지만 아바나 공항에 도착한 직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펼쳐졌다. 숙소까지 그를 데려다주러 마중 나온 사람이 바로 한인 여성이었던 것.

그 여성은 쿠바 한인사회를 이끈 독립운동가 임천택(1903~1985년) 선생의 손녀였다. 그는 관광하러 돌아다니는 대신 임천택 선생 후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100년에 걸친 쿠바 한인의 발자취를 전해 들었다.

"쿠바에서 한인들이 걸어온 길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더라고요. 1921년 쿠바 땅에 발을 디딘 후 농장을 전전하며 척박한 땅을 일궜죠. 그런데도 한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인회를 꾸리고, 한글학교를 세우고, 품삯을 쪼개 조국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탰죠.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걸 왜 모르고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쿠바 한인의 발자취를 담은 다큐멘터리 '헤로니모'를 제작 중인 한국계 미국인 전후석(33) 변호사.

> "우연히 떠난 쿠바 여행이 내 삶을 바꿨다"

그중에서도 전 변호사의 가슴을 울린 건 임천택 선생의 장남이자 한인사회 지도자였던 임은조(1926~2006년 · 쿠바명 에로니모 임) 씨의 삶이 남긴 발자취이다. "쿠바 한인사회를 이끈 '큰 어른'이셨죠. 피델 카스트로 등과 함께 쿠바혁명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한인을 위해 헌신하며 이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전 변호사는 차근차근 다큐 제작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쿠바를 다시 찾아가 2주에 걸쳐 100여 명의 한인을 만나고 영상, 사진, 문서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다큐 제목은 임은조 씨의 쿠바 이름을 영어식으로 표기한 '헤로니모'로 정했다. 1시간 남짓한 분량으로 쿠바 한인의 이주 역사를 짚어보고, 이들이 타향살이하면서 거둔 눈물 젖은 결실을 조명한다. 전 변호사는 시러큐스 대 로스쿨을 나와 현재 코트라(KOTRA) 뉴욕무역관 변호사로 5년째 활약하고 있다. 그는 올해 '헤로니모'를 완성해 국제영화제 등에 출품한다는 계획이다.

"자칫 슬픈 다큐로 비칠 수 있겠지만, 결말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전 변호사는 귀띔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헤로니모' 후손들의 목소리를 담을 생각이에요. '우리는 100% 쿠바인이면서 100% 한국인입니다'라는 메시지죠. 다큐를 본 관객들이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한국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지켜온 쿠바 한인이야말로 '이름 모를 영웅'이 아닐까요?" 창

‘동남아 한류 중심’ 태국 대학입시 제2외국어로 한국어 채택

1.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주최로 1월 29일 방콕 시내 탐마삿 끌룽루앙윗타야꼼 학교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2. 태국 최고 명문 중등학교인 뜨리얌 우돔 쓱사(Triam Udom Suksa)의 한국어 반 교실
3. 태국 최고 명문 뜨리얌 우돔 쓱사의 한국어반 오픈하우스 행사.

동남아시아 한류의 중심지인 태국 교육현장에서 한국어의 입지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어가 현지 대학입시(PAT)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채택된 데 이어 태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경시대회에도 한국어 종목이 생겼고, 현지 최고 명문 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되는 등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빠르게 늘고 있다.

1월 29일 주태국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는 전국 초중등 학생들과 장애인 학생 등이 참여하는 ‘재능경연대회’에 올해부터 한국어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 이날부터 이틀간 본선 대회를 개최한다. 재능경연대회란 1951년 당시 국왕인 라마 6세의 뜻에 따라 도입돼 60년 넘게 이어져 온 일종의 학업능력 ‘경시대회’다. 대회 성적은 지도 교사의 승진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현지 공립학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회다. 대회 종목에는 태국어와 수학, 과학, 사회 · 건강 · 체육교육, 기술 및 직업교육, 예술, 제2외국어 등이 있는데, 올해부터 제2외국어 부문에 한국어가 처음으로 추가됐다. 한국어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에 이어 4번째로 이 대회 종목이 됐다.

> **대학입시 과목 채택 이어 전국 경시대회 종목 편입**

올해 처음 치러지는 한국어 경연대회에는 전국 59개 학교에서 총 472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4개 권역별 예선을 거친 참가자들은 ▲말하기 ▲연극대회 ▲직업 차원의 말하기 ▲프로젝트 발표 등 4개 영역에서 실력을 겨룬다. 한국어가 경시대회 종목이 된 것은 현지 교육현장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태국 대학 총장협의회(CUPT)는 지난해 한국어를 대학입시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채택, 올 하반기로 예정된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부터 한국어 시험을 치른다. 또 대학입시 과목 채택 이후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한 공립학교는 82개교에 달한다. 특히 태국 전역의 수재들이 몰리는 현지 최고 명문 중등학교인 ‘뜨리얌 우돔 쓱사’(Triam Udom Suksa)가 최근 40명 규모의 한국어반을 개설해 눈길을 끌었다. 주태국 한국교육원은 올해 연말까지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공립학교 수를 100개교까지 늘리는 한편, 현지 실정에 맞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도 완성하고 교과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

김상훈 연합뉴스 방콕 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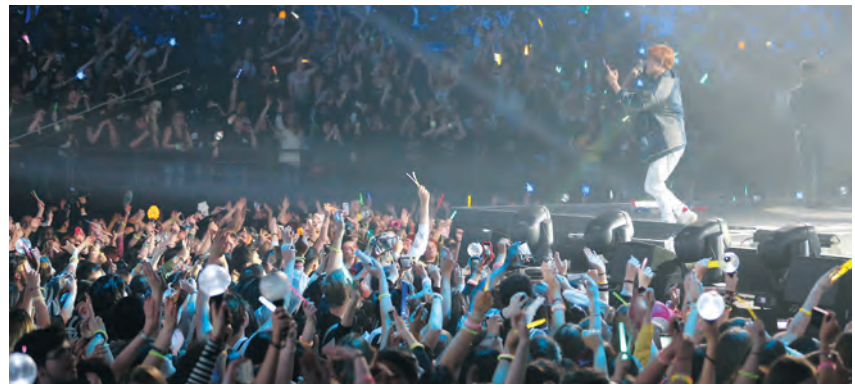
전 세계 한류 팬 6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 뛰어넘었다

지난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 등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한류 팬이 6천만 명으로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브랜드를 단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K뷰티'(K-Beauty)가 차세대 한류 주자로 부상했고,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받아 문학에서도 '코리아'의 위상을 높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6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9개국의 한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88개국에서 1천652개의 한류 동호회가 결성돼 5천939만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는 2015년보다 동호회는 10.6%, 회원은 68%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한류 팬의 수는 한국 인구 5천169만6천216명(2016년 12월 기준 행정자치부 통계)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아시아·대양주의 한류 동호인이 4천10만여 명으로 53%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영화 '아가씨' '부산행' 등이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으면서 1천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과 중남미에서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등이 K팝 인기를 견인하면서 900만 명으로 늘었다.

아프리카·중동의 한류 동호인은 19만 명으로 전년(17만 명)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했다. 차세대 한류 주자로는 'K뷰티', 'K웹툰' 등이 부상했다. 한국 브랜드를 단 화장품이 수출에 날개를 달아 중국, 미국 등 외국인 소비자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고, 웹툰 '미생'은 일본에서 드라마로 재탄생해 한때 주춤했던 한류 인기에 불씨를 댕겼다.



지난해 6월 2일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 2016 France 문화공연에서 블락비가 열띤 공연을 펼치고 있다.

> **88개국 한류 동호회**
> **1천600개 돌파…**
> **회원은 무려 68% 늘어**

특히 대중문화를 주 무대로 삼았던 한류가 지난해에는 소설 '채식주의자'의 맨부커상 수상에 힘입어 순수 문학으로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지난해 한중 관계에 냉기류가 돌면서 중국 당국의 '한류 제재설'이 불거진 것이 한류 콘텐츠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부 대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한류 체험 프로그램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작한 케이팝(K-Pop) 댄스 강습 등 한류 체험 프로그램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강남구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린 케이팝 댄스 강습에 작년 한 해 3천 명 가까운 외국인이 몰렸다. 한류스타의 메이크업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도 정원보다 많은 400여 명이 신청, 27개국 100여 명이 화장법 기술을 배우고 돌아갔다. 창

재외동포재단 "차세대 동포 장학생 선발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제20기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을 모집한다.

세계 각국의 차세대 동포 가운데 우수 학생을 선발해 고국에서 유학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민족 인재를 육성하려는 취지다.

학사 과정 35여 명, 석·박사 과정 45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들은 매년 2차례에 걸쳐 모국 역사문화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향후 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자질 등을 갖추고, 한국에서 유사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해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 건강보험료, 어학연수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초중고 12년과정을 거주국에서 이수(이수 예정)한 자로, 2017학년도 9월 학기 또는 2018학년도 3월 학기에 국내 대학 학사과정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입학 예정 또는 국내대학(대학원)에 2016년도 9월 학기 이후로 입학한 사람이다. 학사 과정 지원자는 만 25세 미만, 석·박사의 경우 만 40세 미만에 한한다.

성적 우수자와 유공 동포,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동포단체 활동가의 후손은 선발 심사에서 우대된다.

신청은 코리안넷(korean.net)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3월 24일(금)까지 거주국의 대한민국 공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공관마다 마감일이 다름으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안넷이나 재단 초청 장학생(scholarship.korean.net)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82-2-3415-0176), 이메일(scholarship@okf.or.kr)로 가능하다

동포재단은 재외동포 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며 한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1997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지원자 모집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2017 온라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

재외공관 및 재단에 등록된 한글학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만20세 이상의 교사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된다. 재단은 80명을 선발해 오는 4월부터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국제언어교육원(4월 24일~7월 2일), 서울대 평생교육원(4월 4일~7월 10일), 연세대 교사연수소(5월 29일~8월 18일) 등에서 교육을 시행한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 과정으로 참가자들은 한국어, 응용 언어학,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 등을 통해 한국어 지식을 키우고 다양한 교수법을 배우게 된다.

교육비 80여만 원 중에 수강생 부담은 5만 원이다. 과정을 모두 마치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참가 희망자는 교사는 웹사이트(study.korean.net)에서 확인 후 지원서를 거주국 공관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동포재단에 내면 된다

초청연수 사업 도울 'OKFriends 봉사단' 모집

재단은 매년 7~8월 열리는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연수 및 여러 사업의 스탭으로 참여하는 'OKFriends 봉사단'을 모집한다.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7-8월에 실시하는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연수 등 재단 사업에 스탭으로 참여하는 'OKFriends 봉사단'을 모집한다.

이들은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과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2017년 현재 국내외 대학교(대학원)에 재·휴학 중인 학생으로 전공에 제한은 없다. 재단은 80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으로 이들은 3월부터 올해말까지 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재단은 봉사단을 글로벌 한민족 청년 네트워크의 중요 요소로 육성해 갈 예정이다.

우리말 배워봅시다

바른 말 고운 말

화사하다

따뜻하고 맑은 봄날을 가리켜서 '화창한 봄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화창하다'는 말은 대개 날씨와 마음씨가 부드럽고 맑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환하고 아름답다'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흔히 '옷차림이 화사하네요' 또는 '화사하게 입었군요'와 같이 '화사하다'란 표현을 씁니다. 요즘은 '화사하다'는 말을 '환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로 주로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분위기를 칭찬할 때 사용하고 있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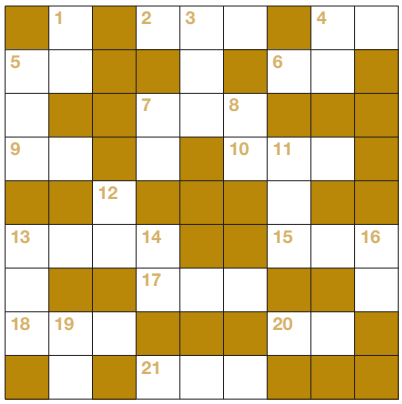
'화사하다'는 말에서 '화(華)'자는 '화려하다'의 뜻이고, '사(奢)'자는 '사치스럽다'는 뜻으로, 즉 '화려하고 사치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화사하다'란 말을 듣는 것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시대도 바뀌고, 말의 뜻도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입니다.

터무니없다

흔히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면 내용이 허황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터무니없다'에서 '터무니'는 '정당한 근거나 이유'라는 뜻이지만, 그 외에도 '터를 잡은 자취'라는 또 다른 뜻이 있는 말입니다.

'집터'라 든지 '옛 성터'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터'라는 것은 집이나 건축물을 세울 자리나 이미 세웠던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건물이 들어섰던 자리는 주춧돌을 놓았던 자리나 기둥을 세웠던 자리들이 흔적으로나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적조차도 없을 때는 그 자리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또는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구조물이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을 겁니다. 이처럼 터를 잡은 자취, 다시 말해서 '터무니'가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용이 허황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터무니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2월호 정답

가	정	교	사	■	백	김	치	■
리	■	■	각	■	열	■	■	명
마	술	■	형	광	등	■	추	태
■	독	약	■	산	■	대	장	■
■	■	장	손	■	증	조	■	■
■	악	수	■	청	■	영	전	■
국	보	■	사	춘	기	■	족	발
화	■	■	형	■	라	■	■	냄
빵	■	탈	수	■	성	장	■	새

▶ 오른쪽 방향 열쇠

2. 봄을 알려 주는 화초로 노란색의 꽃이 핀다. 산에는 진달래, 들에는 ○○○
4. 아이를 낳으면 이것으로 끓인 국을 먹는다
5. 빛의 반사를 이용해 얼굴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비추어 보는 기구. 옛날에는 구리나 쇠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은 유리로 만든다
6.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7. 겉으로는 그것과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나 아닌 것을 이르는 말. ○○○ 종교
9.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머리를 장식하는 끈이나 띠
10. 밀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국수나 빵 등을 만드는 재료
13. 배를 땅에 바짝 붙이고 엎드려 있는 모습.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리거나 그러한 사람을 비유해 이르는 말
15. 용이 되려다 못 되고 물속에 산다는 전설의 큰 구렁이
17. 땅이나 흙 따위를 파고 깎는 데 쓰는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18. 어머니의 반대말
20. 나무나 종이, 가죽 등으로 만든 얼굴의 형상
21. 생후 100일쯤 되는 아기가 사람을 알아보고 옹알거리는 짓

▶ 아래쪽 방향 열쇠

1. 대한민국의 수도
3. 가벼운 볼일로 집을 나서 이웃이나 다른 곳에 갔다가 오는 일
4.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부르는 말. 절세 ○○
5. 논이나 물이 많은 곳에 살면서 몸의 양 끝에 있는 빨판으로 동물의 살에 붙어 피를 빨아 먹는 생물
7. 총이나 대포를 쏘는 것
8.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 또는 알려지지 않은 속내
11.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이것이 찢어지죠
12. 탄광 등에서 석탄이나 광물을 캐는 사람
13. 여름에 나는 과일로 과육이 흰 백도와 노란 황도로 나뉜다
14. 안이 텅 비어 넓고 깊은 큰 굴
16.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든 교통수단으로 철로를 따라 달린다
19.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균사체. 송이 ○○과 영지 ○○○ 등이 있다.

마이빼라이

장현서 _ 태국 _ 2016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우수상

내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는 태국 북쪽에 위치한 조용하고 여유로운 도시입니다.

밤새 고양이와 개들의 사투에 잠을 설치고 아침에는 창문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새소리에 눈을 뜹니다.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운동화를 발꿈치로 눌러 봅니다.

전에 발을 집어넣은 신발 안에서 시커먼 두꺼비가 나온 이 후로 신발 신기전에 내가 꼭 하는 행동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지네, 전갈, 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자연의 도시입니다.

치앙마이 사람들은 늘 미소를 지으며 친절합니다.

길을 물어 보면 모른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물어 본 제가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알려 준 길이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라며 투덜거리면서도 정 많은 이곳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순박한 이곳 사람들이 입에 달고 하는 말 '마이빼라이' 가 있습니다.

'마이빼라이' 는 해석하면 '괜찮아, 상관없어, That's okay' 입니다.

상대의 실수에 미소를 지으며 '마이빼라이' 라며 부드러운 성조로 말하는 모습에 많은 외국인들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엉뚱한 '마이빼라이' 를 경험합니다.

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대형 마트에서 어떤 아저씨가 뒷걸음치다 제 발을 밟았습니다. 덩치가 꽤 큰 20대 중반의 아저씨였으며, 핫바를 들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저씨가 무서웠는지, 정말 발이 아팠는지 잘 모르겠지만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하는 말은 '마이빼라이' '마이빼라이' 였습니다.

그걸 들은 저는 "뭐가 괜찮다는거야!" 하면서 더 서럽게 울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상대의 실수에 '마이뺀라이'를 외치는 태국 친구들은 자신들의 실수에도 '마이뺀라이'를 말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이 주문한 음식과 달라서 물어 보면 '마이뺀라이' 입니다. 심지어 음식이 끝까지 안 나와 물어봐도 '마이뺀라이' 입니다.

식당에 더러운 개가 어슬렁거려서 개를 치워달라고 해도 '마이뺀라이' 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엄마 차를 후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태국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리면서도 처음 한 말도 '마이뺀라이' 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마이뺀라이'는 피해를 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해야 할 말인데 왜 피해를 준 본인들이 '마이뺀라이' 일까 하면서 태국 국민들의 우유부단하고 허술함을 흉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저도 '마이뺀라이'를 말합니다.

이상하게 '마이뺀라이'의 따뜻함에 끌립니다.

요즘 내가 이해하기 시작한 '마이뺀라이'는 처음 태국에 왔을 때 생각도 못했던 해석으로 다가와 나의 마음을 여유 있게 만듭니다.

접촉 사고를 낸 태국 아주머니는 놀란 상황에서 우리 가족에게 말한 '마이뺀라이'는 "이미 사고는 났고 어쩔 수 없잖아, 안 다쳤으니 다행이고 하나씩 풀어가 보자"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실수한 측에서의 '마이뺀라이'가 가슴으로 이해되어지니 태국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나라의 친구들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몸을 부딪치며 공놀이를 합니다. 친구 발을 모르고 밟은 나는 '마이뺀라이'를 외치며 뛰어갑니다.

왜 '마이뺀라이'인지 따져 묻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줍니다.

폭염과 퍼붓는 스콜, 단수와 정전이 반복되는 이곳의 생활 속에서 '마이뺀라이'는 좀 더 '느긋해 지자' 라는 주문처럼 나를 달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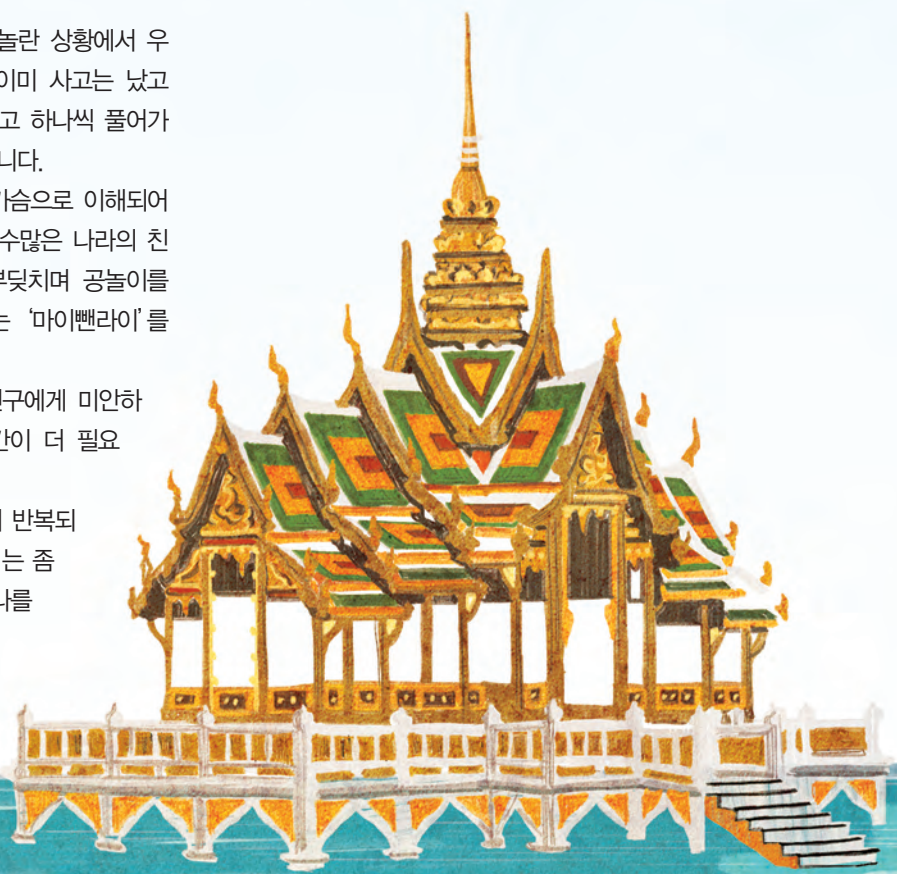
서로 외치는 '마이뺀라이'는 실수 앞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구분하지 않고 해결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마이뺀라이'는 "괜찮아, 오늘 내가 한 실수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메시지고 피해자의 '마이뺀라이'는 "너의 실수지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곳이 더욱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되었던 이 태국의 문화가 정확하고 복잡해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박자 쉬어가며 나와 상대를 배려하는 기회를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마이뺀라이'를 외치게 된 과정에는 그 사람의 실수를 보듬어주고 먼저 '마이뺀라이'를 말해주었던 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국에서의 좋은 추억과 친구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주고받았던 많은 '마이뺀라이'들 때문일 거라는 생각에 이곳이 더욱 사랑스럽게 다가옵니다. 창



소설 '태백산맥' 덕분에 더 유명해진 벌교 꼬막

쫄깃한 식감, 풍부한 영양, 다양한 요리…

꼬막 채취를 위해 여자만 갯벌에서 뻘배를 밀고 나가는 어민들.

꼬막 가게들이 즐비한 벌교시장 길목.

꼬막 음식은 늦가을부터 초봄까지가 제철이다. 낙지가 그렇듯이 꼬막도 겨울철에 살이 탱탱해진다. 추워야 살이 꽉 차고 영양가도 한껏 높아진다. 때도 때이지만 어디서 먹느냐 역시 그에 못잖게 중요하다. 꼬막의 본향처럼 여겨지는 대표적 고장이 바로 전남 보성의 벌교이다. 언제부턴가 '꼬막' 하면 '벌교', '벌교' 하면 '꼬막' 이 자연스레 떠오를 만큼 둘은 천생연분이 돼 버렸다. 벌교를 낀 여자만(순천만)은 곱고 드넓은 갯벌이 넉넉하게 펼쳐져 꼬막과 같은 해산물의 생태 여건으로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꼬막이 벌교의 향토음식이 된 데는 조정래 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의 공이 지대하다. 1980년대 중반에 발표돼 문단을 뒤흔들었던 이 작품의 주요 무대가 바로 보성의 벌교이다. 조 씨는 소설에서 '간간하고 쫄깃쫄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한 맛' 으로 묘사하면서 꼬막을 수차례 언급했다. 꼬막의 성가가 소설의 인기와 함께 순식간에 높아졌다.

벌교에 가면 '꼬막정식' 을 파는 식당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특히 주말이면 외지에서 그 맛을 즐기려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꼬막회무침, 꼬막탕,

1. 풍성한 상차림의 꼬막정식.
2. 콩나물을 넣고 먹는 꼬막비빔밥.
3. 꼬막회무침.

꼬막파전, 통꼬막, 양념꼬막, 꼬막된장국 등 갖가지 꼬막 요리가 한상 가득 올라 군침이 절로 돌게 한다. 읍내 인구가 1만5천 명도 채 안 되는 벌교에 성업 중인 꼬막정식 식당은 20여 개소. 이들 식당에 가면 상을 가득 채운 음식을 바라만 봐도 배가 절로 불러온다. 꼬막 재료의 음식에다 꼬지생선, 낙지호롱, 부지갱이나물, 쥐포볶음, 유채나물, 새송이버섯, 열무김치, 배추나물, 콩나물 등 10여 가지 맛깔스러운 반찬이 줄줄이 오른다.

잘 삶아진 꼬막은 껍질을 까도 몸피가 탱탱하게 그대로이면서 반지르르한 물기가 감돈다고 한다. 식사의 마지막으로 흰밥에 꼬막회무침, 콩나물 등을 넣고 비벼 먹는 식감은 짜릿하다 싶을 만큼 좋다. 이 같은 맛 덕분에 꼬막은 조선 시대에는 임금의 8진미 가운데 1품으로 진상할 정도였다고 한다.

꼬막은 '참꼬막'과 '새꼬막', '피꼬막'으로 크게 나뉜다. 그리고 이들은 생김새와 생태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진짜 꼬막이라는 의미에서 '참'자를 앞에 붙인 참꼬막은 표면에 털이 없고 껍데기의 골이 20개 정도로 깊다. 성숙하기까지 참꼬막이 4년 이상 걸리는 데 반해 새꼬막은 2년 정도면 충분하다. 벌교읍내 시장에서 팔리는 1kg의 소매가는 참꼬막이 1만8천 원, 새꼬막이 9천 원이고 피꼬막은 3천 원으로 가장 싸다. 벌교 꼬막이 유명해진 데는 해변의 생태 여건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뻘(개흙의 방언) 깊이가 평균 15m에 이를 만큼 깊고 뻘의 질이 곱고 부드러워 꼬막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다. 전국 참꼬막 생산량의 70% 정도가 벌교를 끼고 있는 청정해역 여자만에서 생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생태 여건이 좋은 만큼 단백질, 비타민, 필수아미노산, 철분은 물론 각종 무기질이 더욱 풍부하다. 창

보성군 여행정보

당일 여행 정보

소설 태백산맥 무대→벌교 홍교→
강골 마을→해평리 석장승→
득량만(비봉 공룡알 화석지)

대중교통 고속버스

보성~벌교 경유~서울 강남터미널 /
약 4시간 소요

식당정보 벌교꼬막맛집 (061-858-6161)
국일식당 (061-858-0588)

태백산맥 문학관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태백산맥 문학관은 단일 문학작품을 위해 설립된 문학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태백산맥 육필 원고 1만6천500장과 작가의 취재수첩, 작가의 아들과 며느리, 독자가 필사한 원고 등을 볼 수 있다. 문학관은 지면에서 깊이 10m 아래에 자리 잡았고, 전시실에서 관람객이 마주하게 될 일랑(一浪) 이종상 화백의 벽화는 높이 8m, 폭 81m에 이른다. 또한, 해방 후부터 6·25를 거친 민족 분단까지 '민족사의 매몰시대'를 벽 없이 공중에 떠 있는 2층 전시실에 반영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 옥상으로 가면 18m의 유리 탑이 새 역사의 희망을 상징하듯 솟아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6기 OKFriends 봉사단 모집안내

재외동포재단은 "땅은 좁지만 마음이 넓은 민족"으로서의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의 일원이 될 「2017년도 제6기 OKFriends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OKFriends 봉사단」은 재단이 매년 7~8월 실시하는 재외동포청소년·대학생초청연수 및 여러 사업의 스탭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들과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다양한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을 통해 글로벌 코리안으로서의 성장에 관심과 열의가 있으며, 다양한 능력을 갖춘 대학(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기간 및 일정

- 서류접수 : 2017. 3.6(월)~3. 20(월) 12:00 마감
- 면접대상자 발표 : 2017. 3. 22(수)
- 면접일(예정) : 2017. 3. 24(금)
- 최종 선발자 발표 : 2017. 3. 29(수) 17:00 이후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 국내외 대학교(대학원) 재·휴학생 80명 내외

지원자격

- 2017년 3월 현재, 국내외 대학교(대학원) 재·휴학생으로 전공 제한 없음
  ※재외동포학생, 입학예정자 지원 가능
- 활동기간(2017.3~12)동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는 자
-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이 있는 자
- '세계시민'으로서의 글로벌 코리안 가치관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고 있는 자
  ※지원봉사 활동 경험자, 국제경주 스텝 경력자 우대
- 외국어 능력 우수자(말상적 의사소통 가능자,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외국어능력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심사 및 선발

- 재단 자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활동기간(2017.3~12)동안 책임감 있고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로 '활동경력' 및 '지원동기' 중심으로 심사 진행

지원신청서 접수방법 및 문의사항

- 접수방법 : e-mail접수 / okfriends@okf.or.kr
- 문의사항 :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02-3415-017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rean.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NSANG

정부3.0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국내 청년인력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자를 모집 합니다.

한상기업과 국내 청년을 지원하는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Ⅰ. 모집개요

사 업 명 |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주 관 | 재외동포재단
모집인원 | 150명
모집일자 | 2017년 3월 8일(수) ~ 2017년 3월 26일(일)
인턴기간 | 6개월(이후 상호 합의하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
인턴직무 | 디자인, 행정, 마케팅, 등 한상기업 별 요청직무
근무국가 | 아시아, 동남아, 미주, 중남미 등 한상기업 모집 국가별

Ⅱ. 모집대상 및 지원사항

모집대상

- 해외여행 또는 인턴 근무국가 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상기업을 통한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자
- 만 34세(82.1.2.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
- 워킹홀리데이 VISA 발급 국가 지원자의 경우, 최소 9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 소지자만 신청 가능
  ※ 단, 만충 워킹홀리데이 VISA 발급 가능 국가(호주, 독일 등) 지원자 제외
  ※ 워킹홀리데이 VISA국가 확인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www.whic.mofa.go.kr)

정부지원

- 지원금 | 인턴기간 매월 100만원 지원(최대 6개월)
- 보험료 | 인턴기간 보험지원(최대 6개월)
- 교육비 | 국내교육비, 숙식(2박 3일) 및 지방거주자 왕복 교통비 실비
  ※ 항공료 및 비자 발급비는 개인 부담

Ⅲ. 접수 및 문의사항

접수방법 | 한상넷(www.hansang.net) 공지사항 참고
문의사항 전화번호 | 02-3415-0150

한상기업 청년인턴십은

국내 청년인력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한상 육성·한민족 경제영토 확장·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현지 소요에 부응한 맞춤형 인력을 한상 기업에 제공하여, 기업과 인력간 미스매치로 인한 손실방지 및 분야별 인력난 해소 기회 제공 목적의 해외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19th President Election

조국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에 보내주세요
Send the love for your country to Korea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Apply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2017. 03. 30 까지

신고·신청 방법
How to apply or register

※ 여권사본 등 미제출
Copy of passport no longer needed

- 인터넷 이용 (ok.nec.go.kr 또는 ova.nec.go.kr)
  Online (ok.nec.go.kr or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Walk-in registration at a diplomatic office / Submission at a circulating diplomatic office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By post / Via email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Easy and Fas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via the Internet!

재외선거 ▼ 검색 또는 **ok.nec.go.kr**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